

韓國都市男便의 衣服購買行動에 관한 研究

—서울市畧 中心으로—

李 春 桂

東國大學校 家政教育科

A Study on the Purchasing Pattern of Husbands' Clothing:

The Case of Seoul

by Lee Choon-gye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discern the purchasing pattern of urban husbands' clothing in Korea. Studies on this subject in other cultures show that wives play lesser role in purchasing activities of their husbands' clothing in the industrial societies rather than in the pre-industrial ones. It would be interesting to know the way selecting and buying husbands' clothing in urban Korea. Specifically questions to be answered include: Who makes the decision in selecting in kinds of husbands' clothing and who buy them?

Data for this study has been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for 606 married women in the City of Seoul including 192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58 elementary school teachers, 210 mot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56 mothers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47 college professors. Since most women of our sample are relatively high in educational level and working for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uld not be generalized as a general trend of urban Korea.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 1) Purchasing husbands' clothing is not entirely wives' domai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wives in selecting and buying of their husbands' clothing depends upon the kinds of clothings. If it is for such items as underwear, socks, handkerchief, or umbrella,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choose in terms of size, outlook, and price, more wives do the job. Otherwise, however, husbands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selecting and buying their own clothings such as shoes, overcoats, neck tie, and formal wear.
- 2) In terms of clothing behavior of husbands, it seems to be a general trend that husbands select their clothings, but wives buy them.
- 3) Variables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 seem to affect the clothing behavior of husbands. Those who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selecting and buying their clothings include: husbands whose wives have a job outside their family, younger in age,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graduates rather than college graduate or husbands with far lesser education, and husbands who live in western style houses rather than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I. 序 論

A.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現代의 被服生活은 資源·生產·流通·消費의 복잡한 상호관련 속에서 영위되면서,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많은 發展을 가져왔다. 被服材料나 既成服의 大量生產 및 高級化는 消費者에게 選好의 自由를 누릴 수 있게 하였고, 한편 製品에 대한 要求度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消費者로 하여금 計劃性 있는 의생활이 영위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고, 또한 의복선택에 있어 광범위한 과학적인 知識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생활 경영이 主婦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衣服購買 또한 主婦에 의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는 한 調査에서도¹⁾ 나타나고 있다.

一般的으로 의복선택을 他人에게 의존하게 되면, 商品에 대한 지식이나 제품평가능력이 向上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제품에 대한 적정한 要求가 不可能하게 되고, 효율적인 적합한 衣服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品質向上을 저해하는結果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의복구매에는 着用者自身이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선택능력과 전전한 구매行動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點들을考慮하여 本研究에서는 男便의 衣服購買時 衣服購買의 決定을 男便과 婦人の 어느 便이 하며, 衣服購買의 役割인 購買行動은 누가 擔當하는가를 調査하여 男便의 自律性 및 婦人依存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產業型都市나 社會에 있어서는 前產業型에 比해 男便의 衣服行動에 대한 婦人の 協助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²⁾는 事實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男便의 衣服購買行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일은意義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決定은 日常의 家庭生活에서 어떤 問題에 關하여 夫婦中 最終決定權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가하는 것이고³⁾, 役割은 어떤 地位에 주어진 權利義務를 말한다.⁴⁾ 이 役割은 다시 役割遂行斗 役割期待로 分類할 수 있고, 役割遂行은 役割擔當者가 實際로 行하는 行動이다.⁵⁾ 여기서 使用하는 行動은 役割遂行을 말함을 부언해 둔다.

B. 研究의 範圍

첫째 男便衣服購買時에 男便自身의 決定과 婦人の 決定의 程度를 알아 보고,

둘째, 男便衣服購買時 購買行動을 男便自身과 婦人の 協助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세째, 구매결정과 구매행동의 상호관련을 살펴 본다음

넷째, 男便衣服의 購買行動(決定과 行動의 종합행동)과 社會經濟的 背景과의 관連성을 알아 보았다.

C. 研究方法

1. 측정도구

1) 設問紙

主婦(無職業婦人)와 職業婦人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通해 문항을 정리하였다. 답은 ① 男便뜻에 따라 남편구매, ② 남편뜻에 따라 부인구매, ③ 부부합의 구매, ④ 부인뜻에 따라 남편구매, ⑤ 부인뜻에 따른 부인구매의 5段階중 하나에 답하도록 하였다. 整理과정에서는 부부합의의 구매는 복잡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 경우도 있다.

2) 對 象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學母 192명과 教職者 58명, 中·高等學校 學母 210명과 教師 43명, 大學의 學母 56명과 教職者 47명 등 합계 606명을 標集對象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표-1의 (가)·(나)·(다)·(라)·(마)와 같다.

標集對象 選定은 時間의 制約과 經濟的 制約等으로 本

(가)

표 1. 對象者の 社會經濟的 背景

N: 實수

	공무원	회사원	교직계	상업	자유업	기타	주부	계
직업 N	23	11	131	39	12	11	379	606
%	3.81	1.82	21.62	6.44	1.98	1.82	62.54	100.00

(나)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세 이상	계
연령 N	15	216	304	68	3	606
%	2.48	35.64	50.17	11.22	0.50	100.00

(다)

		부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계
학 력	N	6	79	121	217	183	606
	%	0.99	13.04	19.97	35.81	30.20	100.00

(라)

		10만원이 하	10~20만원	21~30만원	31~50만원	50만원 이상	계
월 지 출 액	N	61	178	151	157	59	606
	%	10.07	29.37	24.92	25.91	9.74	100.00

(마)

		아파트	연 립	양옥 1층	양옥 2·3층	한 옥	기 타	계
가 옥 형 식	N	68	28	239	126	95	50	606
	%	11.22	4.62	39.44	20.79	15.68	8.25	100.00

人이 調査하기 便宜하다고 생각된 教職者를 택하였으므로 특히 職業婦人인 경우 教職者에 偏好되어 있음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그리고 많은 數가 教職者인 때문에 教育程度에 있어 高等學校卒業과 大學校卒業이 많은 것도 밝혀둔다. 교육정도의 區分에 있어서는 大學卒業以上者도 모두 대학졸업에 포함하였다.

3) 統計處理

單純統計인 百分率에 의해 處理하였고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相互關係도 Coding Card에 의한 百分率로 處理하였다.

4) 調査時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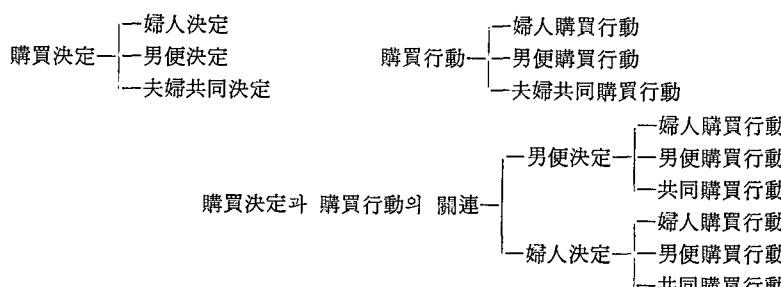
1979年 4月 20日~30日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고, 본 조사는 同年 5月 7日~6月 8日 사이에 실행하였다.

2. 研究方法

1) 試問紙에 의해 集計한 資料를 土臺로 하여 男便의 衣服購買時 購買決定은 男便과 婦人이 각각 어느 정도 實行하며, 購買行動은 어느 便이 行하는가를 考察하고, 購買決定과 購買行動의 相互關連性도 考察해 보았으며, 計定 및 行動과 社會經濟的背景과의 相關性도 考察해 보았다.

2) 購買決定과 購買行動의 特殊을 다음과 같이 区分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家事의 役割遂行과 決定權과를 關連지어 다음의 9種의 類型으로 分類한⁸⁾ 것과 類似한 方법이다.

1. 男便自律型(Ha, Hd)
2. 妻自律型(Wa, Wd)
3. 男便指導型(Ba, Hd)
4. 妻指導型(Ba, Wd)
5. 男便專制型(Wa, Hd)

6. 妻專制型(Ha, Wd)
7. 一致型(Ba, Bd)
- 8, 9. 一致機能別型(Ha, Bd 및 Wa, Bd)
 - Ha = 男便이 혼자 행한다.
 - Hd = 男便이 혼자 결정한다.
 - Wa = 妻가 혼자 행한다.
 - Wd = 妻가 혼자 결정한다.

Ba = 男便과 妻가 협력한다.

Bd = 男便과 妻가 相議하여 결정한다.

3) 사회경제적 배경과의相關性은 婦人の職業有無別, 年齡別, 學歷別, 家屋型別, 家計의 月支出額別과 男便衣服의 購買行動과를 關係시켜 고찰하였다.

II. 結果 및 論議

男便衣服에 있어 남방·와이셔츠 등은 約 70~90% 가 기성복을, 코트·수우츠·바지 등은 約 75%~98% 가 주로 마춤의 구입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⁷⁾ 이와같은 구입형태에 상관 없이 本項에서는 男便衣服의 購買決定 및 購買行動 즉 누구의 뜻에 따라 누가 구입하는가의側面으로 살펴보았다.

A. 男便衣服의 購買決定

男便의 衣服購買에 있어 購買의 決定은 衣服의 種類에 따라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便決定이 가장 높은 것은 신발(65.67%)이다. 넥타이(47.53%), 바지(46.86%), 와이셔츠(45.38%), 상의(45.21%), 남방 및 티셔츠(44.72%), 기타용품(43.07%), 코트(42.90%), 수우츠(41.58%)는 대개 40~50%가 男便이 決定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수건(73.93%), 양말(65.68%), 내의(64.53%), 우산(57.76%), 은 婦人決定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共同決定에서는 코트(42.41%), 상의(36.80%), 바지(34.82%), 수우츠(33.66%)가 높은 便이고 다음은 남방 및 티셔츠(29.21%), 와이셔츠(24.92%), 넥타이(22.44%), 기타용품(21.95%), 신발(21.12%) 등이고,

표 2. 購買의 決定

服種	決定者	男便	婦人	夫婦共同	計
내 의	23.27%	64.53	12.21	100	
와 이 셔 츠	45.38	29.70	24.92	100	
남방·티셔츠	44.72	26.07	29.21	100	
바 지	46.86	18.32	34.82	100	
상 의	45.21	17.99	36.80	100	
수 우 츠	41.58	24.75	33.66	100	
코 트	42.90	14.69	42.44	100	
넥 타 이	47.53	30.03	22.44	100	
양 말	25.09	65.68	9.24	100	
신 발	65.67	13.20	21.12	100	
손 수 건	21.29	73.93	4.79	100	
우 산	31.52	57.76	10.73	100	
기 타 용 품	43.07	34.98	21.95	100	

그외의 종류는 대체로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

위의 결과로서 크기에 구애됨이 없고 材質이나 色·디자인 선택에 어려움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服種은 婦人決定이 높고, 그렇지 않은 服種은 男便決定이 높다고 고찰된다. 이와같은 조건 이외에 가격면에서 비교적 高價한 종류는 夫婦共同의 購買를 行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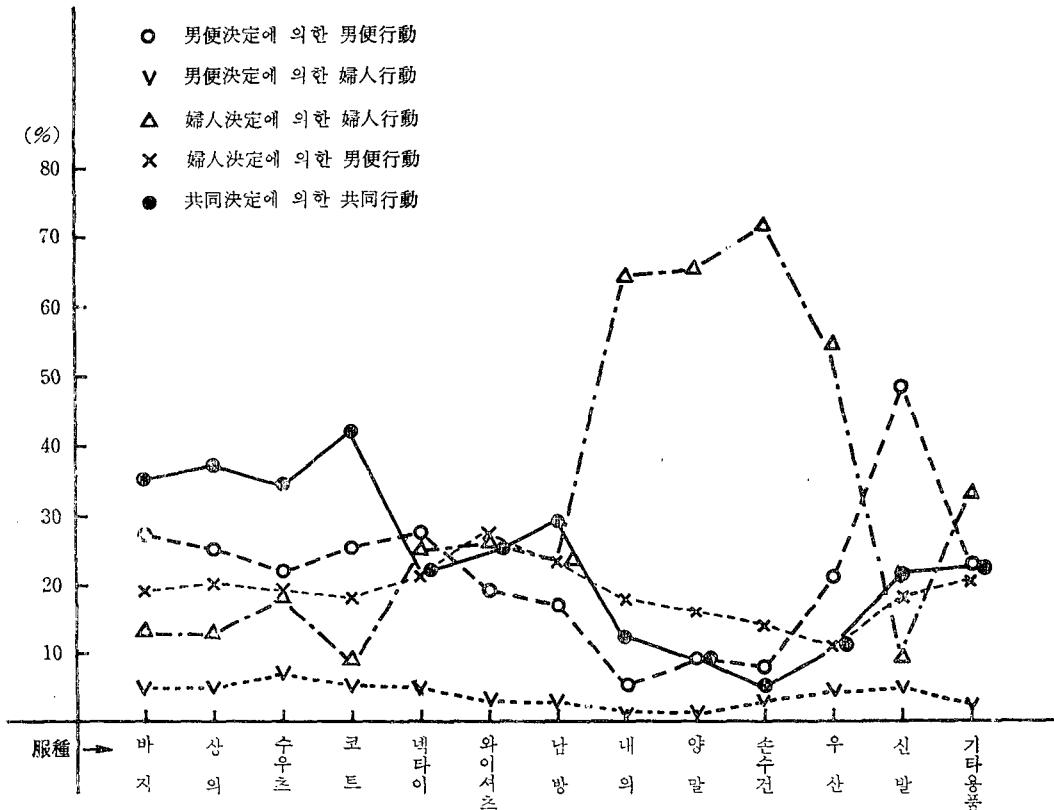
B. 男便衣服의 購買行動

여기서는 衣服을 購買하는 直接的인 行動의 側面에서 살펴보았다. <표 3>을 보면 男便購買가 가장 높은 것이 역시 신발(52.47%)이다. 다음은 바지(32.67%), 넥타이(31.52%), 코트(30.53%), 상의(30.36%), 수우츠(29.04%),의 순이다. 男便의 기타용품(25.25%), 우산(24.76%), 와이셔츠(21.95%), 남방 및 티셔츠(19.97%)는 20%線에 머물고, 양말(10.57%), 손수건(10.40%), 내의(6.28%)는 10% 이하이다. 이와는 반대현상이 婦人의 購買行動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손수건, 양말, 우산은 각각 84.82%, 81.52%, 80.20%, 64.52%가 婦人이 購買하고 있고, 와이셔츠(53.13%), 기타용품(52.80%), 남방(50.82%), 넥타이(46.04%)도 비교적 높은 울이 婦人의 協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코트, 신발도 婦人이 구매하는 것이 27.06%와 26.40%로 나타났다.

구매행동은 의복의 선택이 容易하고 크기에 구애됨이 적은 종류의 옷(내의, 양말, 손수건)일수록 婦人이 購買行動에 협조하는 울이 높고, 구매시 크기나 규격의 細密함이 요구되는가合理性이 결여되어 있는 服種(신발)이나, 이외에 가격이 높거나 材質, 色, 디자인 선

표 3. 購買의 行動

買者	服種購	男便	婦人	夫婦共同	計
내 의	6.28%	81.52	12.21	100	
와 이 셔 츠	21.95	53.13	24.92	100	
남방·티셔츠	19.97	50.82	29.21	100	
바 지	32.67	32.51	34.82	100	
상 의	30.36	32.84	36.80	100	
수 우 츠	29.04	27.29	33.66	100	
코 트	30.53	27.06	42.41	100	
넥 타 이	31.52	46.04	22.44	100	
양 말	10.57	80.20	9.24	100	
신 발	52.47	26.40	21.12	100	
손 수 건	10.40	84.82	4.74	100	
우 산	24.76	64.52	10.73	100	
기 타 용 품	25.25	52.80	21.95	100	



<그림 1> 男便衣服의 購買決定과 購買行動의 相關性

택이 容易하지 못한 服種(코트)은 婦人이 구매 행동에 협조하는 경향이 적다. 일반적으로 男便衣服의 購買는 많은 경우 婦人이 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 男便衣服의 購買決定과 購買行動의 相關性

男便의 衣服購買를 男便決定에 의한 男便行動 · 男便決定에 의한 婦人行動 · 婦人決定에 의한 婦人行動 · 婦人決定에 의한 男便行動 및 夫婦共同決定에 의한 共同行動의 方面에서 考察하였다.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夫婦共同決定에 의한 共同行動이 가장 높은 옷은 바지, 상의, 수우츠 · 코트(35%·37%·34%·42%)이고, 婦人決定에 의한 婦人行動이 가장 높은 것은 손수건, 양말, 내의, 우산, 기타용품(71%, 75%, 74%, 54%, 34%) 등이다. 男便決定에 의한 男便行動은 신발(48%)이 가장 높고 바지(27%), 베타이(27%), 상의(25%), 코트(25%), 수우츠(22%)의 순으로 낮아지면서 共同行動에 의한 共同行動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바지, 수우츠, 상의, 코트에 있어서는 共同行動 共同行動의 경향이 가장 높고, 다음이 男便決定 男便行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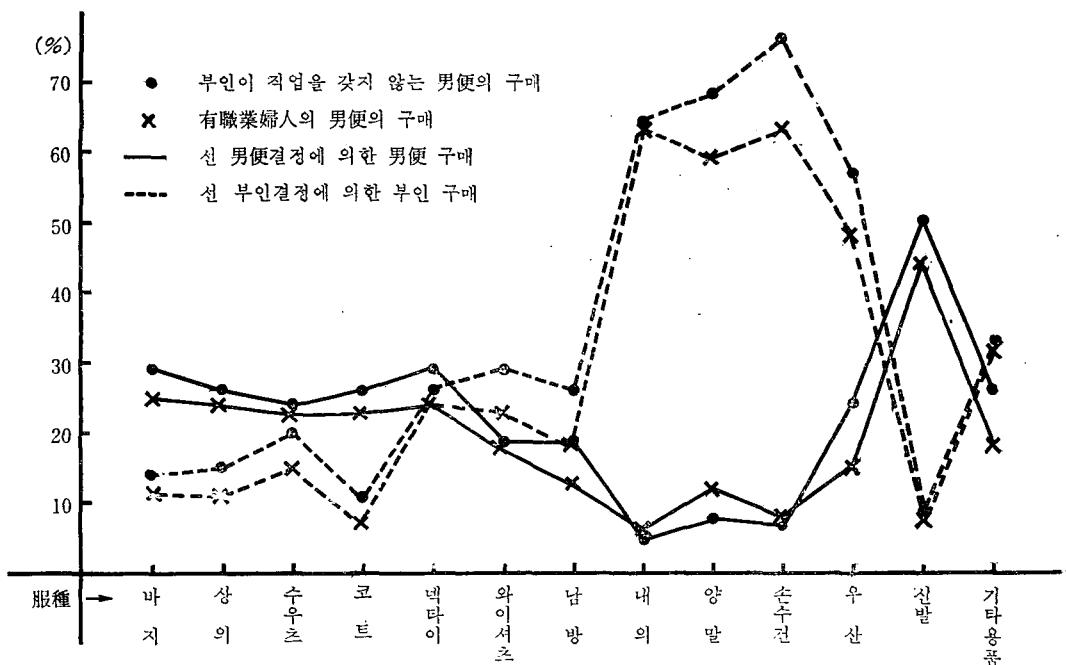
고, 婦人決定 男便行動, 婦人決定 婦人行動, 男便決定 婦人行動의 순으로 낮아짐을 보이고 있다. 이 衣服들은 內衣類가 아닌 衬衫이면서, 正裝 또는 外出服으로 많이 입게 되는 共通性을 가지고 있는 点이다. 男便決定에 의한 婦人行動은 가장 낮아 모든 衣服이 1%에서 7% 사이에 위치하는 曲線을 보이고 있다(▽···▽···▽).

綜合해 보면 正裝 및 外出服으로 많이 着用되는 服種은 夫婦共同決定에 의한 共同行動인 一致型인 類型의 傾向과 男便決定에 의한 男便行動인 男便自律型의 傾向임을 알 수 있겠고, 內衣類나 부속의류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婦人決定에 의한 婦人行動인 妻自律型임을 알 수 있다. 男便決定에 의한 婦人行動인 男便專制型은 극히 적은 傾向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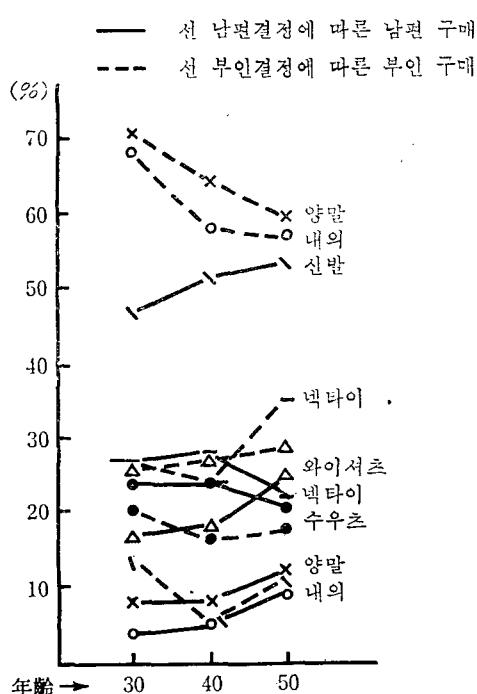
D. 社會經濟的背景과의 相關性

첫째 부인의 직업有無別 差異를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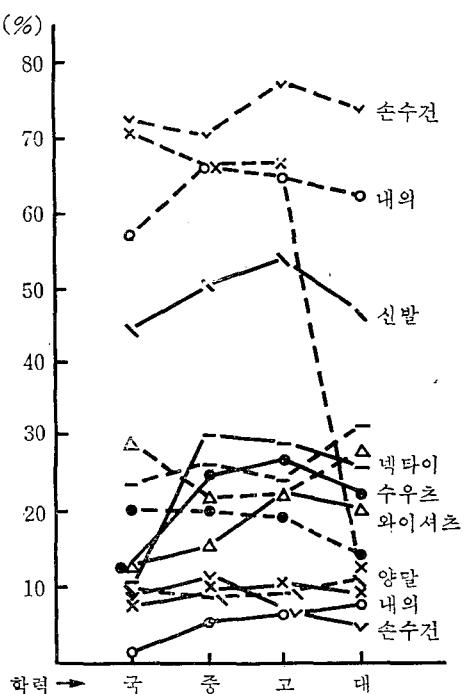
그림 2에 보는 바와 같이 有職業婦人보다 無職業婦人側이 婦人決定에 따른 婦人구매가 높다. 差異를 많이 보이는 것은 손수건, 우산, 양말, 남방 · 와이셔츠이고,



〈그림 2〉 婦人の 職業有無別로 본 男便의 의복구매행동



〈그림 3〉 年齡別로 본 남편의 의복 구매행동
 \신발, △ 와이셔츠, -넥타이, • 수우초,
 ✕ 양말, ○ 내의, √ 손수건
 이후의 그림 부호도 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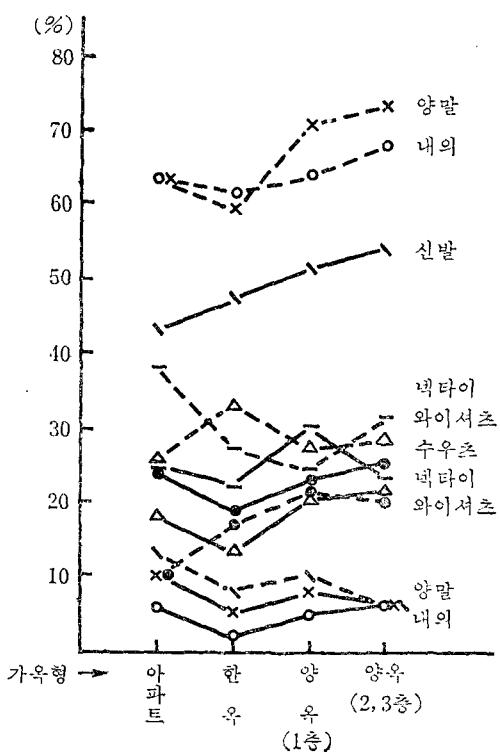
〈그림 4〉 學歷別로 본 男便의 의복 구매행동

신발, 기타용품, 넥타이는 별로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다. 男便決定에 따른 男便구매는 부인側에서보다 적은

差異를 보이면서, 내의, 양말, 손수건은 적은 차이나
마 有職業婦人側의 男便이 無職業부인의 男便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생활에 바쁜婦人을 조력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단 크기와 선택이 용이
한 종류에 한해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年齡別差異를 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디자인의 변화가 다양하지 않은 내의, 양말, 와이셔
츠, 신발은 年齡이 많을수록 男便뜻에 따라 男便구매
가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색, 재
질의 선택에 신경을 써야하는 넥타이, 수우초는 高年齡
일수록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高年齡層에
비해 低年齡層이 의복선택 능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高年齡層일수록 전통적인
意識 및 態度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事實과 관련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學歷別로본 남편의 복의 구매행동의 差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림 4>의 곡선을 보면 대체로 신발, 넥
타이, 수우초는 中卒과 高卒이 가장 높고 전체 의복에
서는 국졸이 가장 낮은 커브를 보이고 있다. 즉 신발,
넥타이, 수우초는 男便의 뜻에 따라 男便구매의 경향
은 中·高卒者가 가장 많고 다음이 大卒이며 國卒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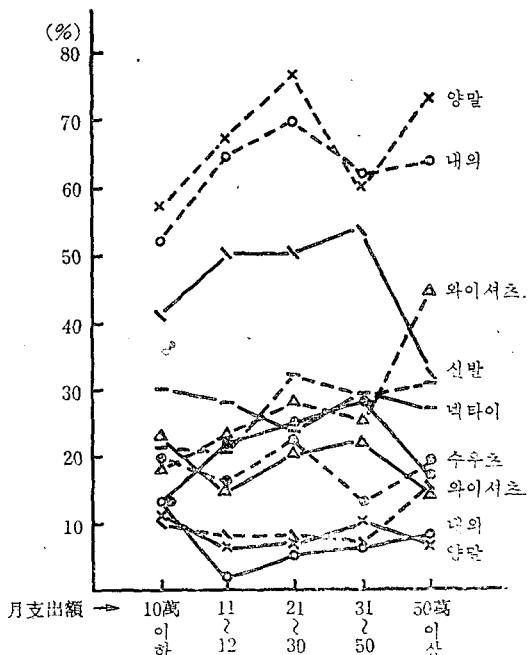


<그림 5> 가우형별 상관성

제일 적다. 단 손수건은 예외로 大卒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美的面에 치중되는 의복선택을 한다⁸⁾고 발표한 연구결과와 상관성이 있는 것 같다.

넷째 家屋型別 상관성(그림 5)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한옥형이 男便뜻에 의한 男便購買가 가장 낮다. 한옥 이외의 가옥형인 아파트·양우 1층·양우 2·3층은 옷의 種類에 따라 높고 낮은 差異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한옥형보다는 높다. 역시 전통性이 유지된다고 생각되는 한옥형의 男便이 自身의 衣服購買를 부인에게 일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家計의 月支出額別 相關關係를 보았다. <그림 6>에 의하면 신발과 수우초가 유사한 곡선으로 31~50萬원층이 男便뜻에 따라 男便구매가 가장 높고, 其他는 10萬원 이하층이 가장 높으면서 11~20萬원층이 가장 낮고, 점차로 高支出층으로 높아지는 경향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 즉 크기나 외모 또는 가격과 관련이 깊은 종류의 옷은 月支出이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층의 男便이自身의 옷을 구매할 때 구매의 決定이나 구매行動이 미약하고, 크기나 외모 또는 가격에 크게 관련되지 않는 종류의 옷은 低支出층의 男便이 구매의 決定 및 行動을 보다 많이 행한다고 추측된다.



<그림 6> 月支出額別 상관성

III. 結 論

現代의 衣生活이 消費性·流動性·多樣性·機能性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⁹⁾는 事實을 고려할 때, 衣服의 선택은 可及的 着用者自身이 行할 필요가 더욱 증가된다. 特히 男便의 衣服購買時 婦人の 協助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측면으로 분석 고찰해 보았다. 이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男便의 衣服을 購買할 때 全的으로 婦人이 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복의 종류에 따라 婦人依存度와 男便自身의 참여도가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즉 크기나 외모(재질·색·디자인) 또는 가격 등에서 선택이 용이한 종류의 옷(내의, 양말, 손수건, 우산 등)은 婦人依存이 많고, 그렇지 않은 종류의 옷(신발, 코트, 넥타이, 수우츠 등)은 男便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2. 男便衣服의 購買行動을 購買決定과 購買行動의 양 측면으로 보면,一般的으로 決定은 男便이, 購買行動에는 婦人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다. 옷의 種類別로 보면 여기서도 역시 前項과 同一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size가 maker에 따라 不規則하여 꼭 신어보든 가 입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재질·색·문양·디자인이 다양하여 선택이 어려운 옷, 또는價格이 高價한 편인 옷, 또는 正裝이나 外出用으로 着用되는 옷의 종류는 男便決定에 따라 男便이 구매하거나 夫婦合意로 구매하는一致型 내지 男便自律型의 類型이다. 한편 여러면에서 선택이 容易한 종류(內衣 및 부속의류)는 婦人の 決定에 따라 婦人이 구매하는 婦人自律型이다.

3. 社會經濟的背景과 男便衣服의 購買行動과의 관계에서는, 婦人이 職業을 가지고 있는 男便이 無職業婦人の 男便보다 自身의 衣服購買行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年齡은 高年齡層보다는 低年齡層의 男便이, 學歷에서는 國卒이나 大卒層의 男便보다는 中·高卒의 男便이 自身의 衣服購買行動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家屋型에서는 傳統性家屋인 韓屋居住층의 男便

보다는 現代型家屋인 아파트나 양옥에 居住하는 男便이自身的 衣服購買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家計의 月支出別에서는 크기나 재질·색·문양·디자인 선택이 용이하지 않거나 高價한 종류의 옷은 中程度乃至中上程度(20萬~50萬원)의 男便이 의복구매행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선택이 용이한 종류의 옷은 월지출액이 가장 낮은 층(10萬원이하)의 男便이 보다 활발히 本人의 의복구매에 참여하고 있다.

以上の結果로 現在의 韓國都市男便의 衣服購買行動의 類型은 한 論文¹⁰⁾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前產業型行動類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으나, 產業型 行動類型으로 志向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引 用 文 獻

- 1) 申尙玉, “都市主婦의 衣生活管理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4, 83, (1976).
- 2) G. Sjoberg, *The Preindustrial City; Past and Present*, The Free Press, New York, 164, (1965).
- 3) R.O. Blood·D.M. Wolfe, *Husbands and Wives*, 11~12, (1960).
- 4) R. Linton, *The Study of Man*, 119, (1931).
- 5) Talcott Parsons & Robert F. Bale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45~47, (1955).
- 6) N.W. Bell·E.F. Vogel (ed),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340~341, (1960).
- 7) 李春桂, “都市民의 衣生活意識”, 대한가정학회지, 11, 25, (1973).
- 8) 金貞鎬, “社會階層과 衣服行態”, 韓國衣類學會誌, 2, 259, (1978).
- 9) 金聲連, 李順媛, 被服管理學, 서울: 敎文社, 24, (1979).
- 10) 李春桂, “韓國都市男便의 衣服行動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論文集, 第十八輯, 129~142, (1979).